

“무구개락(無求皆樂), 구하는 것이 없으면 모두가 즐겁다”

정법을 알리는 국어사전 같은 불교 해설서 ‘선문선답’ 펴낸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 각 스님



현각 스님은 인터뷰 내내 자기 성찰을 강조했다. 다음은 스님이 현대불교 독자들에 전하는 신년 덕담이다. 불자여러분! 금년은 토끼해입니다. 영리한 토끼는 숨을 굴을 세 개나 갖고 있다(교토삼굴: 教兔三窟)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맹상군에서 유래된 고사입니다. 식객으로 있던 풍헌에게 빌려준 빛은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풍헌은 빛을 받아오기는커녕 차용증서를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의 노여움을 산 재상 맹상군은 낙향 길에 올랐습니다. 온 백성들은 맹상군을 환영하고 혹시 모를 위협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왕에게 진정서를 내어 모함에서 벗어나 다시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재(理財)에 밝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중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님이 물었다. “깨닫지 못하는 중생이라던데요.” 스님과 마주 앉은 이의 대답에 스님은 웃음을 지었다. 불교에서는 부처와 중생을 말한다. 흔히 중생은 부처와 상반된 말로 사용된다. 부처 아닌 것이 중생이라는데 정작 중생이란 무엇일까? 마치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처럼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바램을 실어 스님은 <선문선답> 책머리에 “인절미에 덜 콩개진 섞여있는 찹쌀 알을 움짤이라고 한다. 씹는 맛이 밥알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고소한 그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선문선답>과 인연이 된 불자들이 움짤의 진미를 느끼듯이 불교교리를 정확하게 익히고 고소하게 음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적기도 했다.

책은 스님이 수년간 불교방송 ‘신행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방송된 원고를 재정리한 것이다. ‘신행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에게 받았던 ‘선문’ 즉, 좋은 질문들에 대해 사족 없는 대답인 ‘선답’으로 답했다.

<선문선답> 상권은 수행과 공부, 하권은 고승과 경전으로 구성됐다. 어렵기만 알고 정확한 뜻을 몰라 고민하던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151쪽의 질문에 대한 선학자의 명쾌한 답이 담겨 있다.

궁금증이 더해진 기자가 “불보살의 ‘가피’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가피(adhiti-sthante)는 불교도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adhiti’는 ‘스승의 임으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stha’는 ‘머무르다’라는 말이고, ‘ante’는 ‘들어가다’ 혹은 ‘중간’을 뜻합니다. 종합하면 ‘나의 생각이 스승이 가르쳐준 곳에 머문다’는 뜻이 됩니다. <범화경>의 호년(護念)이 가피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피는 불보살의 위신력을 받는 것이며, 불보살이 중생에게 불가사의한 힘을 부여해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현각 스님은 한역에서 놓치기 쉬운 용어를 산스크리트어의 어원까지 밝혀가며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가피와 관련된 당 태종과 현장 법사의 대화를 수록해 읽는 이의 이해를 도왔다.

당 태종이 말했다. “집이 가피보호를 열심히 하는데, 교단이 문란하니 신심이 떨어집니다.”

현장 법사가 당 태종에게 말했다. “곤륜산에 옥(玉)이 있다고 하지만 모래와 진흙이 섞여 있고, 여수에 금이 있다고 하지만 기와 조각과 자갈도 있습니다. 흙과 나무로 나환을 조성했지만 공격하면 복이 생기고 쇠와 구리로 부처님을 조성했지만 파괴하면 죄가 됩니다. 진흙으로 만든 용이 비를 주지

못하지만 기우제는 반드시 진흙용에게 지내는 것입니다. 범승(凡僧)이 비록 복을 주지는 못하지만 복을 닦으려면 반드시 범승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말 끝에 태종이 활연대어졌다. 태종이 말하기를, “집이 이후로는 비록 사미승을 보더라도 부처님 공경하듯이 하겠습니다.”

현각 스님은 “불교에서 마음을 심전(心田)이라고 표현한다. 마음은 부처의 종자가 심어져야 할 저장고라는 뜻으로 심지(心地)라고도 한다”며 “마음이 선악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지가 오곡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내 마음밭을 잘 일구고 가꾸는 이에게 불보살의 가피가 있지, 자꾸 남을 탓하거나 비방만 하는 이에게는 가피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어제 밤 꿈은 찰나의 꿈이고 인생은 긴 꿈이다”고 말했다. 아침에만 잠깐 피는 버섯인 ‘조균’은 밤·낮이 무엇인줄 모른다. 매미도 여름 한 달만을

산, 속리산 깊은 곳에 쓰러져있는 주목은 쓰러지가 아니다. 개미도 살고 굼벵이도 사는 곤충들의 서식지이다. 나무는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주목이 산속에서 이타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은 인간 본성을 깨운다. 평생을 선학자로서 선 연구에 매진한 학자는 선을 무엇이라 말할까? 현각 스님은 “선 수행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가는 여정과 같다”고 말했다. “가는 길은 산천초목을 다 지나가니 멀고 힘들지만 여정이 끝나면 따뜻하고 푸근한 고향집에 도착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스님은 “고승스럽기만 하다면 왜 선수행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스님은 “대부분 사람들이 새해에 ‘금년에는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원한다”면서 “내 바탕이 닳아지지 않았는데 어찌 부처님이 내 소원을 전부 들어 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부처님 전에서는 ‘올해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발원이 아닌 다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현각 스님이 행복한 삶의 방법을 제시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행복해 집니다. 또, 무구개락(無求皆樂), 구하는 것이 없으면 모두가 즐겁다.”

현각 스님은 자기 성찰을 강조했다. 수행이 잘되려면 참회기도가 먼저이듯, 한 해를 잘 살려면 지난해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 스님은 베토벤이 자신의 곡을 쓰다가 ‘이렇게 써야만 하나?’ 하며 악보 위에 적었다는 ‘must it be?’(꼭 그래야만 하는가?)를 예로 들었다. 스님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여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긋하던 차는 다 식어버렸다. 기자는 어느새 스님의 학생이 돼 있었다. 스님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 졌다. 스님의 자상한 법문은 <선문선답> 책에서도 느낄 수 있다.

교정은 눈 치우는 사람들로 붐볐다. 무심히 쌓여있는 눈도 나의 분신이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밟고 지나가기가 어려웠다. “낮은 곳에 있기에 행복할 수 있다” 현각 스님의 말씀이었다.

현각 스님의 선문선답 상·하권 | 현각 저 | 한결을 더 | 1만 2000원, 만원

禪 수행은 부모님 계시는 고향가는 여정 멀고 힘들어도 도착하면 푸근하고 안락

알고 봄, 가을, 겨울을 모른다. 인간도 똑같은 것이다.

스님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만 전부 인줄 안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진행 중인 연구실로 비유하자면 이 교수 연구실은 많은 연구실들 중 한 곳이고, 교수회관도 캠퍼스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 스님은 “세상은 하나의 큰 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남가일몽(南柯一夢) 같은 짧은 인생에서 올바른 경전 공부를 통해 미망의 세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각 스님은 “인간은 결국 지(地)·수(水)·화(火)·풍(風)으로 흩어진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은 본디 한 덩어리”라고 말했다. 스님은 “내 몸도 자연에서 왔다. 무심히 밟는 저 땅도 한때는 나의 몸의 일부였다”며 “무엇 하나 소홀히 여길만한 것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불교는 공존공생하는 삶을 강조한다. 스님은 “지리

참회기도가 먼저이듯, 한 해를 잘 살려면 지난해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 스님은 베토벤이 자신의 곡을 쓰다가 ‘이렇게 써야만 하나?’ 하며 악보 위에 적었다는 ‘must it be?’(꼭 그래야만 하는가?)를 예로 들었다. 스님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여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긋하던 차는 다 식어버렸다. 기자는 어느새 스님의 학생이 돼 있었다. 스님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 졌다. 스님의 자상한 법문은 <선문선답> 책에서도 느낄 수 있다.

교정은 눈 치우는 사람들로 붐볐다. 무심히 쌓여있는 눈도 나의 분신이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밟고 지나가기가 어려웠다. “낮은 곳에 있기에 행복할 수 있다” 현각 스님의 말씀이었다.

현각 스님의 선문선답 상·하권 | 현각 저 | 한결을 더 | 1만 2000원, 만원

글=현진영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이 최근 출간한 <선문선답>(한결을 더 刊) 상·하 권에는 이에 대한 답이 실려 있다. 중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스님을 찾았다. 선학자인 스님은 <남마다 좋은날>, <선학의 이해>, <선어록 산책>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선과 선학의 대중화에 힘써 왔다.

“즐기세로부터가 중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티 끝부터 도깨비, 선녀까지도 다 중생이예요. 중생은 생유(生有), 즉 살아있는 모든 것이고 존재 하는 모든 것입니다.”

현각 스님은 “요즘 사람들이 ‘중생’의 개념도 제대로 잡지 않은 채 마치 구구단처럼 외워서 아무데나 쓰고 있다”고 우려했다.

스님은 “요즘 많이들 불법을 공부한다고 해도 진수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다. 부처님 정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법을 전하는 책을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선문선답>이 출간자부터 불교교리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곁에 두고 위편삼절(韋編三絶, 가족으로 맨 책 끈이 세 번 끊어질 정도로 읽다) 할 수 있는 국어사전 같은 책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생애 깨달아 성불하는 활인참선

재가자 하안거 봄산철 정진대 중모집

삼매체험 禪 수련회 · 단기출가

체계적 공부 지도

단식 · 참선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면역력 강화

청소년 · 대학생 · 일반

*수련회 : 5일

*단기출가 :

30일, 50일, 100일

· 2월 21일 ~ 25일

· 3월 25일 ~ 29일

- 물만 마시고도 당뇨병 · 고혈압 · 성인병 · 난치병을 퇴치 예방 가능
- 면역성 노화방지 · 아토피 · 생리관계 · 요요현상 없음
- 공부함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어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음
- 장애에서 벗어나게 됨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번지
☎ 1644-5266, 070-7519-9929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활인선원

네이버카페 [활인선원](#)